

수출 중기 10곳 중 6곳 “원화 강세로 채산성악화”

308곳 중 62.3%가 응답... 사업 계획 수립 시점 대비 환율 10% 하락시 영업이익률 10% 이상 하락이 32.3%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60%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율 하락세로 채산성이 악화됐으며, 영업 목표를 위한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181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8개월째 원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출 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환율 하락세로 채산성(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62.3%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점 대비 환율 10% 하락 시 영업이익률은 ▲10%p 이상 하락(32.3%) ▲7~10%p 하락(25.0%) ▲4~7%p 하락(25.0%) ▲1~4%p 하락(17.7%)한다

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181원으로 나타났다. 영업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환율인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은 1,118원이었으며, 이미 지난 일주일동안(11.9~11.13) 그보다 더 낮은 평균 환율(1,114.5원)을 기록한 만큼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손실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수출대가 조정(46.8%) ▲원가절감(26.6%) ▲대금결제일 조정(13.0%) ▲결제통화 다변화(8.1%) ▲환변동보완 가입(6.2%) ▲선물환거래 가입(4.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환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리는 정부 정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70.8%) ▲수출 관련 금융·보조 지원(34.4%) ▲환변동보합 확대(9.7%) ▲환관리 전문 인력지원(7.8%) 등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75.0%) ▲전시회 취소로 인한 기존 바이어 교류 단절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49.4%)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33.4%) ▲주요 수출국 재봉세 조차에 따른 물류·통관 애로(23.7%)를 꼽았다.

김태환 중소기업청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주요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화 강세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농협과 이마트는 지난 12~15일 이마트 내점 고객에게 심리향미(500g) 2500개를 증정하고 시식 매대를 운영해 이마트 소비자들에게 전북 쌀 명품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를 선보였다.

전북 쌀 명품 브랜드, 소비자 입맛에 ‘딱~’

도-전북농협, 이마트에 ‘예담채 심리향미’ 시식 매대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올해 수확한 전북 쌀 프리미엄 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를 이마트 전주점, 군산점, 익산점, 남원점에 납품하고 소비자들과 만났다.

전북 농협과 이마트는 지난 12~15일 이마트 내점 고객에게 심리향미(500g) 2,500개를 증정하고 시식 매대를 운영해 이마트 소비자에게 전

북 쌀 명품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를 선보였다.

올해 수확한 ‘예담채 심리향미’는 벼의 파종단계부터 수확까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체계적인 재배기술 교육, 농업인의 현장지도, 농협의 계약재배로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맛과 향이 뛰어나다. 생산농협 관계자는 맛을 본 소비자들의 “맛있다”는 빠른 입소문으로 온

프라인 주문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의 대형 농협유통센터(하나로마트) 6개 점포에 입점해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예담채 심리향미가 전북 소비자는 물론 수도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벼 제외 품종 도내 농가보급률 10% 미만”

도의회 농산경위, 농기원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예곡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최훈열 의원(부안)은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고도화 지원사업 기술과제로 선정된 11개 과제에 대해 적정한 과제인지 질의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친환경 전력기반 핵심부품 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

해 상용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공급기반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들의 잦은 외부강의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올해 외부강의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외부강의가 이뤄지는 점을 질타하며, 직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바쁜 영농

철 농기계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이 연기되면서 농민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최근 3년간 FTA 대응을 위해 12작목 65품종의 신종품을 육성했는데, 벼, 스타티스를 제외한 품종은 도내 농가보급률이 10% 미미함을 질타하며, 육성 품종에 대한 홍보와 보급에도 신경 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탄저병 저항성 고추, 전체면적의 15%까지 늘어

현재까지 국내 60여 품종 개발 병 발생 줄어든 원인으로 비가림 재배면적 확대 등 꼽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의 재배 면적이 전체 고추 면적의 1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고추 탄저병은 여름철 덥고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며 매년 20~30%의 생산량 감소와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병이다.

탄저병 저항성 고추는 저항성이 있는 고추를 도입해 전통 육종 방법으로 교배함으로써 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만든 품종으로, 고추 육종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은 공동 연구(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를 통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했다. 이후 민간종자회사의 개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60여 품종의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개발됐다.

이들 품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돼 현재 전남 해남, 전북 임실, 충남 태안 등 전국 고추 재배 면적(3만1,146ha)의 약 15% 정도인 4,600헥타르(ha)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진청이 전국의 생육 조사 관찰 포장(재배지)을 조사한 결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7월과 8월 고추의 생육이 2011년보다 10.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탄저병 발생이 줄어든 이유는 ▲비가림 재배면적 확대 ▲탄저병 방제 체계 확립과 현장 기술지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전체 고추 재배 면적의 15%까지 확대된 탄저병 저항성 품종의 보급이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진청에서는 이상기후에 적응성이 높은 계통과 탄저병을 포함한 바이러스, 풋마름병 등 다양한 병 저항성 계통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육종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소포자(생식세포) 배양 기술을 확립하고 이 기술을 이용해 민간육종 회사에 4년간 797점의 다양한 육종 소재를 분양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유문 채소과장은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병해충 발생의 변동이 큰 작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대책 가운데 최선은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채소 작물의 병 저항성 유망 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육종기술을 추진해 우수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국내 채소 수급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곧 김장철... 올해 김장비용 하향·안정세

4인 가족 기준 29만9000원으로 전주 대비 3.4% 하락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김장비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지난해 대비 3.4% 하락한 29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T가 지난 4월에 이어 11월에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

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와 생강이 하락했고, 생육이 부진한 쪽파와 아지 출하량이 많지 않은 것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재료인 배추·무가 하락하고,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채소류가 상승해 전체 김장비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농활감시다 김장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김장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2

월 2일까지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매장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T는 김장철을 맞아 aT페이스북(facebook.com/atookook)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에 김치 요리 경연대회 수상작인 ‘퓨전 김치요리 레시피’를 2개씩 소개할 예정이다.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 등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백년소공인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세신정공·명성기어정밀 등 4개 업체 선정 현판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주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 및 금속가공 소공인을 만나 자금·관료개혁 등 소공인이 겪고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의 소리는 ‘20년도 2차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5개업체를 대상으로 백년소공인 선정을 축하하는 현판식과 더불어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선정된 5개의 백년소공인이 전주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작업환경개선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업체라는 점이다.

백년소공인 5개업체는 ▲기계연지개발로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세신정공’ ▲산업을기계부품제작으로 다수의 고정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명성기어정밀’ ▲제조 스마트화를 준비하고 있는 ‘금광산업’ ▲국제기계전시전에 참가해 해외 판로를 개척한 ‘성심연마’ ▲지자체 시설의 대규모 식당 설계와 납품을 하는 ‘신흥종합주방설비’ 등이다.

이번 현장의 소리를 통해 전북중기청은 백년소공인 선정업체에게 대출 관련 우대금리 지원, 전문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안내하고 전북 지역내 백년소공인 네트워크 교류회 등 다양한 공동체 운영 방안을 추후 검토해 보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안남우 청장은 “백년소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백년 가게와 더불어 자금·관료개혁·기술개발·홍보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기능인 일자리 창출

새만금개발공사-공제회 협약

공정 건설문화 조성 등 기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지난 1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이하 공제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과 건설기능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과 지역 건설기능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관리 및 복리증진과 지역 건설기능인 취업지원에 힘쓰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강 사장은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면 건설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물론 지역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행복도시’ 만든다

LX, 전주시 행정업무에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한다.

LX는 공간분석 기술과 전주시에서 생산된 행정데이터를 융합해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LX는 지난 6월부터 환경, 복지, 교통, 부동산 등 5개 분야 총 8개로 제공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개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 분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 ▲산단단지 대기오염 확산 분석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폭염 취약지 분석을 통한 대응 지원 ▲소방 및 분식 활동을 고

려한 불법주정차 단속 경로 지원 ▲집수리지원사업 이력 관리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 등으로 전주시 공무원이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 CCTV 시각자료 분석, AED(자동제세동기) 최적 설치지역 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전주시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행정업무에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X 김택진 공간정보본부장은 “더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전주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만든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X는 2018년 8월 전주시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분석 모형을 완성, 이를 토대로 도시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